



남원춘향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춘향시대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남원춘향제, 내달 8일 개최
공연·전시·체험 등 다채

남원춘향제추진위원회(위원장 안숙선)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제89회 춘향제를 관한루 60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기념을 위해 관한루원과 남원예촌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600년의 역사를 품은 관한루원과 한국관광의 별로 빛나는 남원예촌에서 펼쳐지는 춘향제의

상설형 프로그램 '지금은 춘향시대'에서는 춘향전의 이야기를 녹여 낸 재미있고 매력적인 공연과 게임, 전시 및 체험 행사로 구성해 운영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연 프로그램으로 남원신관사포 부임행차 공연단이 사포의 일상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어 관객과 함께 즐기는 ▲신관사포 볼나들이와 ▲춘향제의 역사와 전통을 신세대의 익살과 유머를 가미한 단막극으로 꾸민 코미디 춘향전 ▲게임 프로그램으로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미션 게임 '사랑의 주사위'가 있다.

또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춘향과 몽룡이 되어 춘향제를 즐길 수 있는 한복체험 ▲남원의 옛 모습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유명 작가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작가와 함께 직접 작품을 꾸며보는 지붕 없는 미술관 등이 구성되어 있다. 임용택 춘향제전위 집행위원장은 "89회 춘향제에서는 관객과 소통하는 체험을 진행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금은 춘향시대' 등을 통해 남원의 멋과 품격을 알리고 신선한 재미와 즐거운 추억, 감동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승원 '무티 이탈리아 오페라 아카데미' 첫 한국지휘자

지휘자 이승원(28)이 '리카르도 무티 이탈리아 오페라 아카데미 오디션'에 선발됐다. 한국인 지휘자가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은 최하다. 매니지먼트사 목프로덕션에 따르면 이승원은 최근 일본 도쿄음악대학에서 열린 이 프로그램의 최종 오디션에서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에게 발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300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 DVD 심사를 거쳐 12명의 지휘자가 선발됐다. 이 중 네 명이 도쿄 하투사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무티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최종 선발된 지휘자들은 4월4일 도쿄 문화회관 메인홀에서 열릴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공연을 중심으로 무티가 공연을 준비하고 작업하는 모든 단계에 참여하면서 배우게 된다. 이번 리골레토 공연은 리골레토 역에 프란체스코 란폴피, 질다 역에 베네라 프로타소바가 캐스팅되는 등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네 명의 선발된 지휘자들의 별도의 콘서트는 2020년에 열릴 예정이다. 리카르도 무티 이태리 오페라 아카데미는 2015년 이탈리아 라벤나에서 출범했다. 주세페 베르디의 계승자인 무티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이탈리아 오페라의 깊이를 새로운 세대의 젊은 지휘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여름 '팔스타프', '라 트라비아타' (2016), '아이다' (2017), '맥베스' (2018)를 중심작품으로 열었다. 올해는 일본 도쿄 스프링 페스티벌의 하나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승원은 목프로덕션을 통해 "신인 지휘자로서 오페라를 오케스트라와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기회인데, 이탈리아 오페라 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와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게 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승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현악사중주단 노부스콰르텟에서 비올라를 맡았다. 지난해 투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BMI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 타이완 타이페이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1위 수상 등을 하며 차세대 지휘자로 거듭나고 있다. /뉴시스

남원문화도시사업 추진위원회, 농촌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송문갑)는 지난 29일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종선)와 '문화적 교류증진과 농촌권역 문화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시권역과 농촌권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와 농촌마을단위의 문화적인 자산을 활용한 시민중심의 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의 농촌권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원도심 위주로 진행되어왔던 문화도시사업을 농촌지역까지의 확장에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농촌권역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4월 6일(토요일 오전 11시) 사매면 서도역에서 진행 예정인 '빛꽃 흐드러진 서도역 소풍'이 첫 사례가 되어 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협업 구조 마련을 위해 각 기관(단체)관계자로 구성된



모임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단위사업 공유와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의 네트워크 통합 프로젝트 제안 및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이 지난 29일 군민회관에서 문화재청, 전라북도, 장수군 주최,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주관으로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어제를 담아 내일을 설계하다'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학술심포지엄 개최

장수군은 지난 29일 군민회관에서 문화재청, 전라북도, 장수군 주최,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 주관으로 가야문화유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군산대학교 확장교수가 '장수군 가야문화유산 선별과 집중', 예원대 전경미 교수 '장수군 가야 유적 현황과 보존관리 방안', 전주대 김경미 교수 '포용적 관광성장을 위한 장수군 로컬리티 구현의 필요성', 전북대 남해경 교수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전주대 이재운 교수를 좌장으로 김석

희(문화재청), 서정석(공주대학교), 유철(전주문화유산연구원), 이훈범(중앙일보), 장세길(전북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백두대간의 서쪽에 유일하게 자리한 가야문화유산을 알리고 이를 보존하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국가사적, 세계유산 등재 등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 일원에서는 240기의 왕릉급 고총고분과 70개소의 제철유적, 21개소의 봉수유적, 4개소의 산성유적 등 가야문화유산이 확인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